

시민 43% “5·18 생각하면 분노·슬픔”

광주시, 3001명 대상 첫 정신보건 현황조사

5·18 참여시민 상당수 외상 후 스트레스 여전

광주시민 10명 중 4명은 5·18민주화운동(이하 5·18)을 생각할 때 분노나 슬픔, 죄의식 등 매우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운 정서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1980년 5·18에 직접 참여했던 광주시민 중 상당수는 아직까지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광주시는 7일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역 사회 정신보건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19세 이상 광주시민 3001명을 대상으로 1대1 직접 면접조사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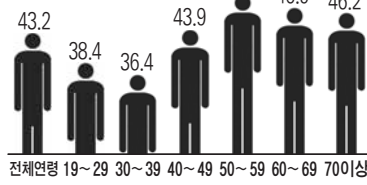
먼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조사에서 ‘내가 원하지 않았

는데도 5월이 되면 5·18에 대한 생각이나 그림이 떠오른다’는 문항에 응답자 중 55.8%가 ‘그렇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39.4%, 30대 48.0%, 40대 61.0%, 50대 65.0%, 60대 61.1%, 70대 이상 62.3%였다. 또 ‘5·18과 관련된 꿈을 꾸다’는 문항에는 5.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5·18을 생각할 때 매우 강한 정서(분노, 슬픔, 죄의식)를 느낀다’는 문항에는 43.2%(남자 48.7%, 여자 38.7%)가 ‘그렇다’고 했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 38.4%, 30대 36.4%, 40대 43.9%, 50대 48.5%, 60대 46.9%, 70대 이상 46.2%였다.

‘5·18을 생각하면 신체적으로 불안한 감정(땀, 질식, 가슴 두근거림 등)

■ 5·18에 대해 ‘분노·슬픔·죄의식’을 느낀다’는 응답자 비율 단위: %



을 느낀다’와 ‘5·18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문항에서는 11.3%가 ‘그렇다’고 답했다.

국가폭력피해자 실태 조사로 이뤄진 ‘5·18을 직접 경험(참여)한 광주시민 128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에서는 30.7%가 아직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광주시민의 우울감 경험률은 7.9%였으며, 특히 아내와 사별한 남성의 우울감 경험률이 29.4%(여성 20.8%)로 모든 조사항

목 중 가장 높았다. 이혼한 여성의 우울감 경험률은 23.3%, 남성은 20.8%였다.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문항에서는 23.7%가 ‘그렇다’고 답해 전국 평균(27.3%)보다 다소 낮았다. 성별로는 남자(22.8%)보다 여자 (24.4%)가, 연령·성별별로는 남자 40대(35.2%)가, 여자 20대(27.5%)가 높았다.

광주시민의 자살 시도 경험률은 4.2%였다. 특히 최근 1개월 이내 자살 충동 경험률은 2.5%였으며, 남녀 모두 50대에서 각각 3.0%와 5.2%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 행복복지수 점수에서는 100점 만점에 평균 66.1점(남자 67.2점, 여자 65.3점)으로 전국 평균(63.2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광주시는 8일 오후 광주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이번 조사 결과보고회를 갖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금연홍보 캠페인

제41회 보건의 날을 맞아 지난 5일 광주 북구보건소(소장 김은숙) 직원들이 전남대 후문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금연홍보 캠페인과 함께 건강생활 홍보물 등을 나눠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목포 아파트 화재 일가족 3명 사망

주민 22세대 긴급대피... 경찰, 화재원인 조사

목포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날 가족 3명이 숨졌다.

목포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11시20분께 목포시 옥암동 W아파트 11층 김모(38)씨 집에서 불이 나 김씨의 아내 조모(여·35)씨와 딸(5), 아들

(2) 등 일가족 3명이 숨졌다.

김씨 아내는 화장실에서 응크린 채, 두 자녀는 안방에서 누운 채 각각 발견됐다. 김씨는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다.

불은 소방서 추산 7500여만원의 재

산 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위층에 살던 강모(여·32)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주민 22세대가 긴급히 대피하기도 했다.

경찰에서 김씨는 “방에서 가족이 모두 함께 잠을 자던 중, ‘불이야’하는 아내의 외침에 거실로 나가보니 이미

불이 번져있는 상황이었다”며 “이웃에 도움을 요청하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삼시간에 불이 커져, 구하러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외부 공기가 유입돼 삼시간에 불이 커진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20대 여성 알몸 활보에 ‘찰칵찰칵’ 도움은 커녕... 부끄러운 시민의식

인터넷 사진 유포 수사

20대 여성이 알몸으로 10여분간 거리를 돌아다닌 장면이 인터넷과 SNS로 유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에 있던 행인들은 사진 찍는데만 몰두하면서 해당 여성을 보호하려는 기적조차 보이지 않아 ‘시민의식 실종’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7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께 목포시 상동 P소 광물 앞 사거리에서 A(여·25)씨가 알몸으로 걸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예수는 우리 죄를 알고 계신다”고 울부짖으며 걷는 A씨를 발견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다.

이후 A씨의 알몸 사진은 지난 번 행인들에게 찍힌 뒤 휴대전화를 통해 급속히 퍼질라졌고 인터넷에도 ‘목포녀’, ‘목포노출녀’ 등이 검색어로 오르내리고 있다. 여성을 뒤쫓아가며 동영상 찍어 유포시킨 행인도 있었다.

정확한 시간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1km가량 알몸으로 활보하는 동안 행인들이 도움은커녕 촬영만 하고 지나쳤다는 것이다.

경찰은 가족들의 신고에 따라 최초 유포자를 색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짜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적용해 처벌키로 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도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상태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순천시 신혼부부 잇따라 교통사고

승용차에 남편 치어 사망, 같은 장소서 부인도 부상

신혼부부가 잇따라 교통 사고를 당했다.

지난 6일 새벽 1시50분께 순천시 조례동 D아파트 앞 육교 밑 도로에서 김모(32·여·수시)씨가 체어맨 승용차에 치어 숨졌다.

김씨의 아내 박모(32)씨도 1차 사고 직후인 1~2분 뒤 같은 장소에서 영업용 택시에 치어 전담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편의 사고를 목격한 아내 박씨가 현장에서 접근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순천에서 자영업업을 하는 이들은 1년 전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날들이를 갔다 귀갓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어맨 운전자 0.07%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김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보고 승용차 운전자,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예상 1~2분 뒤 같은 장소에서 영업용 택시에 치어 전담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편의 사고를 목격한 아내 박씨가 현장에서 접근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7일 새벽 0시 10분께 광양시 금호동 태극역 부근 도로에서 강모(20)씨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등 자주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강씨와 함께 타고 있던 조모(21)씨 등 2명이 숨졌다.

/*순천=김은숙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박정렬기자 pyj4079@

지만원 벌금 100만원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작년 4·11 총선을 앞두고 일간지에 야당 총선후보들을 비방하는 광고를 실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씨는 작년 3월 일부 일간지에 ‘진보 세력이 총선에서 이기면 나라가 위태롭다’며 민주통합당 정동영·한명숙·유시민 후보를 반대하는 광고를 실은 혐의로 기소됐다.

“휴대폰 찾아내” 지구대서 행패

○...술에 만취해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20대 남성이 ‘관공서주취소란’ 혐의로 불찰해 60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될 형편.

○...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4)씨는 지난 5일 새벽 3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지구대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으니 경찰이 위치 추적해 찾아달라”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는 것.

○...경찰은 귀가 요청에도 김씨가 30분 가량 난동을 피우자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관공서주취소란’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우수건축사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히 가는
2중단열 방수 천장 결로방지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본사 전속모델
탈렌트 이영 후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정서코칭 및 학교폭력예방상담사 수강생 모집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위한 사랑과 행복의 기술

교육일시: 1단계 2013년 4월 6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2단계 2013년 4월 13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3단계 2013년 4월 20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4단계 보수교육 2년간 4회 이수 - 1회: 5월 10일(금) 오후 6시 ~ 10시

교육장소: 광신대학교 진리관
제출서류: 입학원서 www.ayce.co.kr 첨부자료 다은 kcfce@hanmail.net 접수문의: (사)한국청소년상담교육협회 062) 652-0675, 010) 8299-6237
교육비: 25만원 / (사전 접수: 3월 30일까지 입금 한하여 22만원)
입금계좌: 농협 355-0012-1260-13 예금주: (사)한국청소년상담교육협회 (보수교육비 별도 1회당 5만원 및 자격검증비 별도/정서코칭 2급 5만원, 학교폭력예방상담사 3만원)
특 전: 포레정서코칭지도사 취득을 위한 임상시간에 포함될 포레정서코칭지도사 과정: 정서코칭필수 + 교육2회, 임상 후 자격이수 정서코칭 + 아동가족심리상담사 두 강좌 접수시 혜택: 교육비 40만원

주관: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www.kwangshin.ac.kr
후원: fcbci 광주동방총회 www.ayce.co.kr (사)한국청소년상담교육협회

여성가족부 인정 2013-1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08-1>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3년 6월 17일(월)~ 월, 화, 목, 금 오후 6:00~

모집대상 <각 항목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된 교육 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